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몸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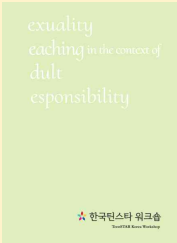
2026 통권 64호

더욱 체계적이고
풍성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교재를 개정하고
학생용 교재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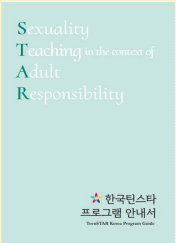
가장 큰 개정 목적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이끌어갈 때, 틴스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가치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한국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에서 사용하는 워크숍 북은 그 내용을 다듬고 풍성하게 보완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서를 통해 한국틴스타의 홈페이지와 앱의 원할한 사용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교사용 교재는 각 단원이 지향하는 세부적인 교육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여, 수업 중에 핵심 메시지가 흐려지지 않고 사랑과 생명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생용 교재는 단순히 아이들이 읽고 쓰는 워크북을 넘어, 교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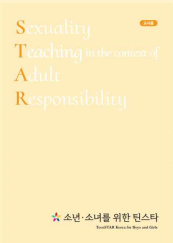
새롭게 개정된 교재가 틴스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더 깊이 연결해 주는 훌륭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틴스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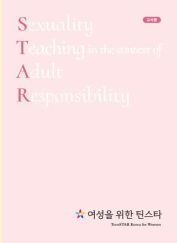
프로그램 안내서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교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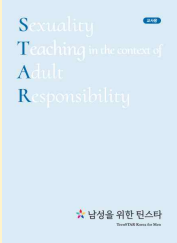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여학생용)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남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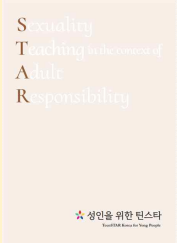
여성을 위한 틴스타 (교사용)

여성을 위한 틴스타 (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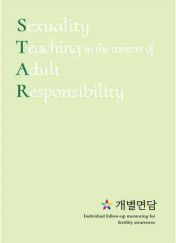


남성을 위한 틴스타 (교사용)

남성을 위한 틴스타 (학생용)



성인을 위한 틴스타



개별면담

※ 틴스타 프로그램은 한국틴스타 워크숍의 전 과정(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수료한 교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틴스타 활동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홈페이지 사전 등록 요청 및 저작권 준수 안내]

틴스타(TeenSTAR)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일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미인정: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한국틴스타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의 한계: 공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인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 사고, 또는 분쟁에 대해서도 '한국틴스타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해당 프로그램을 임의로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청구: 사전 미등록 상태로 프로그램을 임의 진행하여 한국틴스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관에 직·간접적인 해를 끼칠 경우,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를 한국틴스타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틴스타의 올바른 가치 전달과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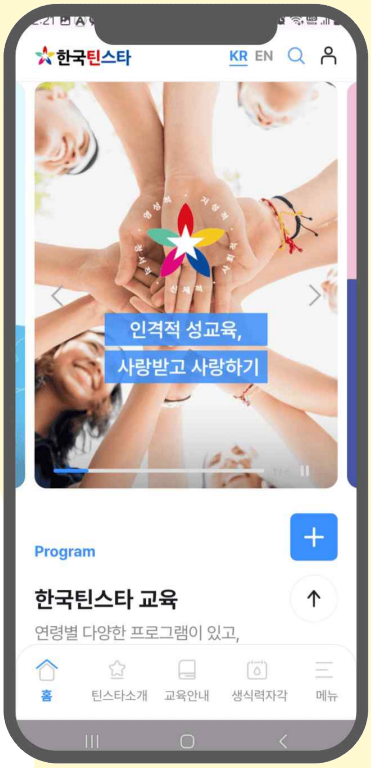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5-804-490599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性)을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충만한 생명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틴스타와 함께 해 주세요.

틴스타 교사들의 필수앱

한국틴스타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공지사항 전달, 자료 다운로드는 물론
워크숍 신청 및 프로그램 개설,
생식력 자각과 학생 면담 관리까지
한국틴스타앱 하나로 해결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한국틴스타를 검색하세요!

한국틴스타 검색

사람을 위한 교육

손호빈 디오니시오
(한국틴스타 대표)

안전한 성행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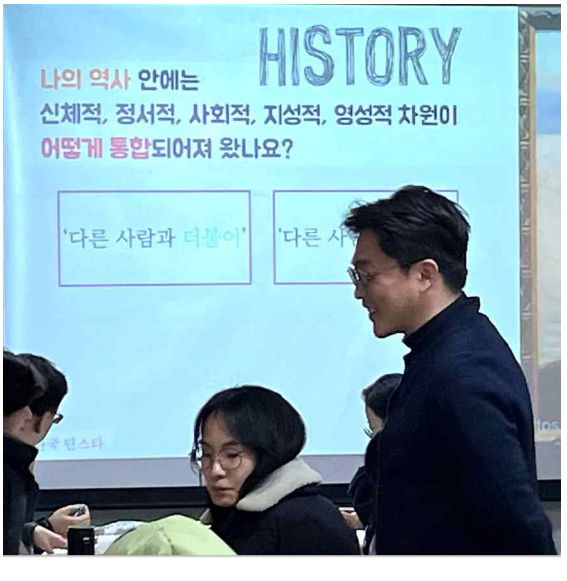
흔히 '성교육'하면 신체적 측면에 국한된 교육으로 오해하거나 성적 행위와 연관지어 무언가를 알려 주는 교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성(性)'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성교육을 생물학적, 기능적, 개인 위생적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 성적 행위와 경험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간접적인 체험과 자동 반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 또는 과도한 목적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왜 성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성을 분리하여 생물학적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리거나 쾌락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성교육을 마치 성적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무언가(결과)'에 대한 예방교육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마침내 안전한 성행위를 위한 피임교육으로 방향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우리가 범람하는 성에 관한 견해들, 통제를 벗어난 포르노, 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훼손해 버리는 지나친 자극들과 같이 넘쳐 나는 정보에 휩싸여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없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과 성을 마치 별개인 것처럼 여기며 금기시하거나 가볍게만 여기고 있는 것이 그 까닭인지도 모릅니다.

성교육은 인격 교육

'성(性)'은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 생명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성'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은 인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로, 그 사람이 존



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인간적 사랑을 공유하고 표현하며 주고받는 양식 중 하나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며, 내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성을 지닌 한 사람을 또 다른 나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성을 키우는 인격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은 우리 안에 내재된 탁월한 능력이나 잠재력, 숨어 있는 재능 그리고 선함과 그 사람만의 개성을 이끌어 내어 발현시켜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듯 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춰 정서적 배려와 공감을 생각하며 적절한 때에 올바른 지식을 전해 주는 교육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격적 성교육은 안전한 성적 행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해 버릴 위험이 큽니다. 성이 사고팔 수 있는 단순한 '상품'이 되면 성적 존재인 사람 또한 상품화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 지닌 충만성과 긍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하느님의 모상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2025년 3월 디다케에 실린 손호빈 신부님의 글을 발췌·수정하였습니다.

성(性), 사랑으로 응답하는 책임

윤현준 요셉
(웅상성당
233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처음 틴스타 소개특강을 듣고 관심이 생겨 워크숍이 유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를 앞둔 딸과 아직은 어리지만 조금씩 커가는 아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틴스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피임을 잘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성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틴스타 교육 과정을 통해 성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생명의 신비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교육을 들으며 성이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책임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특히 성은 나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존엄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틴스타 교육을 들으며 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소중히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더욱 감사히 여기며 사랑을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워크숍은 조카들이나 제 아이들에게 단순한 책임이 아닌 진정한 성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알려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웅상성당 주일학교에서 진행될 틴스타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성과 사랑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가 되기 위한 준비

김선영 글라라
(덕계성당
233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8회기의 틴스타 워크숍은 나와 내 몸이 지닌 소중함과 생명력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의 몸과 감정, 선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역시 존엄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체적 현상이 아닌 인간관계와 사랑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이자 지성적·감성적·영성적으로 연결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내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선택하는 ‘자기 조절’의 가치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오래 기억될 중요한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내내 마음 한편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은 남녀 두 사람이 만나는 ‘관계’의 영역인데, 만약 그중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인격적 교육을 접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을 생명과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단순한 유희나 본능의 영역으로만 여긴다면 그 간극에서 오는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 가치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만남’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틴스타 교육은 나 혼자만의 성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화법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배운 이 ‘존중의 언어’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지를 하나의 숙제로 안은 채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치가 전해져, 모든 남녀가 서로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하고 보듬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진지하고 묵직했던 틴스타 수업

이기수 도미니코
(고성성당,
224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고성성당 남학생들과의 수업을 앞두고 막연함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막연함을 느꼈고,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처음 틴스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잘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수업을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설렘도 느꼈습니다.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성교육을 경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성과 관련된 대화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런 저로서 학생들과 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설렘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잘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욕 발동과 발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며 학생들이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발기 현상이 생리적이면서도 또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자극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며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위행위에 대해 다루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제가 학창 시절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대화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위행위가 왜 건강하지 않은지 생명과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하며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는지 함께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묵직했던 대화 분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매주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틴스타 교재를 중심으로 교안을 짜는 일은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혼자 교재를 읽어보고 준비하는 시간도 분명 필요했지만. 디렉터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동반하는 학생들에게 받은 질문을 나누고,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적절할지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제가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화하고 수업 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뼈대도 없이 살만 붙이려고 했기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뼈대만 있고 살은 없는 막막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틴스타 선생님들께서 공유해주신 수업 자료는 구체화의 과정에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딱딱하게 느끼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으로 기억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배치를 일렬로 하지 않고 모둠 형태로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을 보며 수업을 함께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자기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나 개별 면담 중에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질문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도록 하며 학생들이 자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업이 학생들에게 성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틴스타 수업을 통해 저도 성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틴스타 선생님들과 고성성당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오윤정 아녜스
(분당성모유치원 자모,
234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저는 아직 유아기를 보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육아와 근무로 정신없는 일상 중에도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여섯 살이 된 첫째 아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리로는 안된다고 배웠음에도 '펠리칸이 물어다 줬어'라고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치원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틴스타 교육이 열릴 때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육은 평일에 이루어졌고. 워킹맘이었던 저는 아쉬움을 가득 안고 수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학기 말 설문을 할 때, 내년에도 또 틴스타 과정을 열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입학 상담에서 저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읽어주신 원장 수녀님께서, 상현동 성당에서 틴스타 기본 과정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타본당 신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고, 주말마다 다른 예정된 일정들도 있어서 고민이 되었지만, 순간 '하느님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선생님과 상담을 거쳐 감사하게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7주간의 과정동안 예정되었던 일정들이 일사천리로 변경되면서 한번의 결석도 없이 무사히 수강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와 같은 과정이 모두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가능했음을 느낍니다. 틴스타 기본 과정을 이수한 이후로는 알을 깨고 나온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인식에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성'을 인지하는 나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틴스타 과정을 미리 수강한 주변 어머님들의 응원과 추천을 받고서도 괜스레 움츠려든 상태로 참석한 첫 시간부터 뒤통수를 땅!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동안 '성'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서, 나의 아이들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의 몸이라던가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인지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걸.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은 비단 나의 아이들 만이 아니라 나의 몸 자체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터부시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성'이라는 개념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 벅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의 틴스타 시간은, 사랑받기를 바랐으나 정작 나 자신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마음으로 알고 있는 저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타인 중에서도 내가 오롯이 나 자신을 증여해야 하는 대상이자 증여받아야 하는 남편이라는 인격과 사소한 눈맞춤 하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의 모습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교'의 표양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틴스타 과정을 통하여 제 자신이 조금 더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애정이 깊어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틴스타 교육은 또한 저 한 사람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가치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후기글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느끼고 깨닫고 배운 바가 많은 시간이었기에 좋은 강의를 이끌어 주신 신부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틴스타 교육을 듣는 기회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에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실천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아직 교육 수강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틴스타 과정은 단순한 성교육을 넘어서 내 안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증여를 통한 행복의 완성

손창성 프란치스코
(동천동 성당,
234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틴스타를 만나게 해준 나의 사랑스런 아내 헬레나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 겨울 퇴근하고 온 나에게 아내가 틴스타 교육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는데, 성교육 프로그램인데 좀 비싼데, 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막연하게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갈 시기니까, 그리고 성장이 빠른 딸이 2차 성징도 나타나고 해서 아빠로서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같이 교육 듣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수업 날, "Sex"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라고 하는데, '헉!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여성분들이었고, 남자라고는 날 포함해서 3명인데 갑자기 "Sex"가 뭐냐니, 당황스럽고, 얼굴 빨개졌습니다. 50대 중반에 많은 여성들에 둘러싸여 "Sex"를 주제로 교육을 받다니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시작된 걸 어찌하나 하는 심정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왜 이제 내게 온 거야?"

그러나 마지막 수업을 끝내면서 느낀 점은 '왜 이렇게 늦게 틴스타를 만나게 된걸까'하는 아쉬움입니다. 청소년기에 또는 혼인 전에 틴스타를 만나고 성에 올바른 인식과 타인과의 관계의 의미를 알고 지금의 내가 되었더라면 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을 이용한 돈벌이에 몰두하는 상업 자본들에 의해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과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성과 성관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성은 부끄럽고, 은밀하며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는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단어" 또는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틴스타 교육 이전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틴스타 교육을 마친 지금 저는 당당하게 "Sex"와 "Sexuality"에 대해 말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도 은밀하지도 않으며 "성"은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느님에 내게 부여해 주신 선물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틴스타 교육은 우리 각자의 몸, 그리고 우리 몸에 하느님이 새겨주신 “Sex(성)”의 참된 의미 즉, 나를 나답게 하고 그것을 통해 영성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성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를 완성해가며 그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증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 등을 ‘선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기”+“증여” 즉, 자기를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는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이해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남성을 여자에게는 여성이라는 “Sex(성)”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소명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여성의 남성으로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를 선물로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 틴스타 교육은 저에게 이런 멋지고 근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출발점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결정(행동)을 하고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깨닫는 의미(이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틴스타 교육은 성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180도 변화 시켜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틴스타는 사랑을 표현하는 교육이다

김성이 안나
(여주 소화유치원,
235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이번 성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강의에서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과정, 배란일, 생리주기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사실 교과서에서 몇 번 배웠던 내용이지만, 영상으로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특히 정자가 남성의 몸에서 나와 질 내부와 자궁경부를 지나 나팔관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다. 수많은 정자들이 함께 출발하지만, 그중 단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에 도달해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고 인상깊게 느껴졌다.

긴 여정과 치열한 과정 끝에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나도 그렇게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선택되어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을 지나 나를 만나기까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으셨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 순간, 괜히 부모님이 보고 싶어졌고 감사한 마음이 크게 느껴졌다. 동시에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고 말씀드렸다. 그 이후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전보다 더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나도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비교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 역시 기적 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따뜻해졌다. 모두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번 강의는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앞으로 나의 남편과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시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만큼,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사랑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싶다.이번 성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돌아보고,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 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앞으로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나에게 참 소중한 기회였다.

나를 만나는 교육 틴스타

엄진수 엘리사벳
(여주 소화유치원,
235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요즘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면서 나 자신은 후순위에 둔다. 특히 유치원 교사인 나는 유아들의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고, 유아의 기분이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상호작용해야지, 유아의 상황이 이럴 땐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하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훈련이 된 사람이다.

틴스타는 그랬던 나에게 하느님이 계획하신 나, 사람의 나, 여성의 나, 선물의 나, 상호 증여의 결과인 나, 수억의 정자의 사투와 난자의 받아줌으로 만들어진 나, 인격적 사랑의 나 등 수많은 나를 만나게 해 주었다.

처음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행동, 행위에 관한 관점이 강했다.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행동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나에게 나의 몸알기로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충격이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나의 몸이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나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어줌과 받아줌이 있었는지, 부모됨의 책임감과 보살핌 등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강의 후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남편과 부부다운 대화를 나누었다. 육아에 지쳐 부부다운 대화를 한지 오래된 우리 부부에게 변화의 시작을 알린 시간이었다.

또 한번의 충격은 자연주기법 시간이었다. 그동안 사실 내 몸에서 나오는 점액은 모두 피곤해서 나오는 냉이라고 생각했다. 한번도 관찰하거나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기를 알려주는 일들이었다니 다시 한번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나는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으니 당연히 피임 도구를 사용해왔다. 강사님이 “사람들은 콘돔이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정곡을 찔렸다. 콘돔 사용만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무기라고 생각해왔다. 콘돔 사용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었다. 남편과 대화 주제가 또 하나 생겼다.

요즘 나는 틴스타 앱을 통해 점액관찰기록표를 작성하면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며 나를 더 알아보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틴스타를 만난 후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를 더 많은 이 세상의 남성과 여성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시편 139,14)

이현수 요한세례자
(수원 가톨릭대학교,
236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사제로서 살아갈 부르심을 받은 이들, 혹은 다양한 형태로 독신을 살아갈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직면하는 한 가지 현실적이고도 비통한 질문이 있다. “당신은 몸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한다. 정욕은 이길 수 없는 것이며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며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나 또한 그러했다. 연습하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차라리 육체적 정욕이 없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신학교에 입학하고서도 몸은 그저 나의 순결함을 방해하는 공작꾼일 뿐이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동을 모른 체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숨고 싶어지는 나의 모습을 수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몸과 함께 있을 때면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렇다. 부르심 안에서, 나는 하느님께 “몸 빼고” 봉헌하고 싶었다.

그렇게 지친 탓에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질 때쯤, 우연히 틴스타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는 여느 교육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귀 기울여 듣지조차 않았다.

그런데 듣다 보니 틴스타는 뭔가 달랐다. 방법이나 개념이 주된 교육 내용이 아니었다. 성이 무엇인지, 성이 어떤 이념과 연결되는지는 이해를 위한 기초 과정에 불과했다. 틴스타는 성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보다, 우리 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머물며 동반해 주는 교육이었다.

인간 몸에 새겨진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 그리고 그 신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을 때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는 인간,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아픔에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하느님을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닌 바로 우리 ‘몸’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의식과 지향에 맞추어 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 했던 여타의 성교육과는 달리, 틴스타는 교회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왜’ 해야만 하는지

알려주었다.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께도 허락하신 고귀한 일이며, 그 자체로 선한 몸을 통해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다.

교회가 왜 효율과 다수결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했는지 틴스타는 나에게 생각하도록 초대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야말로 인간의 존엄함이 찬란히 빛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나에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냐고 말이다. 틴스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내게 희망을 준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나의 몸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내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충분한 힘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별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사랑을 담아 나를 지어내신 주님의 숨결이 이미 내 몸에 머물고 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그 태초의 감탄이 내 몸에 깃들어 있다.

이제 나는 몸을 배제한 반쪽짜리 봉헌이 아닌, 온전한 봉헌의 길을 걷기 위해 길을 나선다. 나의 몸이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건네는 따스하고 생생한 손길이 되도록, 더 나아가 나의 삶이 주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랑의 악기가 되도록 독자 여러분의 기도를 청하며 이만 글을 줄이고자 한다.

한국틴스타 발전 방향 안내

운영 체계 및 교육 과정 변화

한국틴스타는 국제틴스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운영체계를 기존 서울대교구 협력단체에서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체계 전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합니다.

첫째, 한국틴스타의 독립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확립하고, 둘째, 한국틴스타의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며, 셋째, 현재 서울대교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지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 전환 과정에서 한국틴스타는 내부 정비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용어 정의에 일부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의 방향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소통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는 새롭게 정리된 교육과정 개요 및 용어 정의를 안내드립니다.

[교육 과정 개요 및 용어 정의]

한국틴스타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 안에서' 인격적 성교육을 지향하는 기관으로,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 **틴스타 워크숍(TeenSTAR Workshop)**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 **틴스타 프로그램(TeenSTAR Program)**
  어린이를 비롯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점진적 교육과정이며 성(性)과 생식력의 올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수자**: 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로, 틴스타 프로그램의 일부를 비영리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수료자**: 틴스타 워크숍의 '기본과정과 교사 양성과정(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로, 생식력 자각이 가능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3. **활동교사**: 틴스타 워크숍을 이수 및 수료하고, 한국틴스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한 교사를 말합니다. 활동교사는 정교사 자격 취득 대상자이거나, 정교사 자격을 보유한 교사를 포함합니다.
4. **강사**: 한국틴스타 정관 및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틴스타 워크숍에서 공식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5. **총괄 디렉터**(Executive Director): 국제틴스타 위원으로서,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및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교육의 방향과 목적]

1. 교육 방향

틴스타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식력을 자각하고 이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통합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틴스타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워크숍 및 실습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하며,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 교육 목적

틴스타 프로그램은 워크숍 기본과정 이상을 이수 및 수료한 사람과 활동교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래는 교육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다.

1) 교사 양성 및 교육 내용

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을 수료한 교사는

- 여성을 위하여: 동성 교사는 여성이 자신의 생식력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주기를 관찰·기록하며 가임기와 비가임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남성을 위하여: 동성 교사는 남성의 지속적인 생식력과 사춘기의 시작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부부 교육: 남성과 여성의 생식력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여 자연 주기법을 실천하는 부부와의 질의응답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실제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사의 역량

교사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수업을 준비·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토론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인지적 학습과 경험적 학습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는 자신이 먼저 생식력 자각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교육 과정의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논리적이고 일관된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3) 부모와의 협력

교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학부모에게 교육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자녀의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첫 번째 부모 모임을 주도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다.

4) 학생 지도 목표

틴스타 교사는 학생들이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생식생리와 'Wait & See', 즉 자연 주기법의 기초 이해
- 배란을 중심으로 한 생리 주기 내 신체적·정서적 변화의 인식
- 남성과 여성의 생식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 자연 주기법의 '방법'보다 '이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 여성의 감정주기가 지닌 생리적 기반에 대한 존중
- 사랑과 성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자유와 책임의 가치 존중

한국틴스타 지금

소개특강

- 3.15 의정부 신원동 성당
- 4.25 경북 청도 성당
- 6.13 용인 신갈 성당

분당성모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2026 상반기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수업 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단계	활동교사
종교단체	수원	상현동 성당	3	김신야, 김진연, 이정희, 전유미, 박상범, 원경희
학교	서울	개원 초등학교	1	이주현
기관	분당	성모 유치원	1	이정현, 민이린, 유은선, 이수정, 장민애, 전현주, 고은솔, 민정기, 윤나영수녀, 이지현, 정혜림, 차윤정
			3	송백경, 최현석신학생
	여주	소화유치원	1	구윤아, 김혜란

* 어린이 프로그램을 첫 수업현장으로 진행한 교사는 정교사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2026 상반기 한국틴스타 수업 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활동교사
종교 단체	서울	착한목자수녀회(성인)	강은주수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성인)	이진아수녀
	수원	상현동성당(소년소녀)	오세익, 한정제, 성정아
	울산	병영성당(성인)	하영애
	춘천	착한목자수녀회(성인)	강은주수녀
	대구	고성성당(남성, 여성)	이기수, 임영지
기관	서울	명동영성센터(소년소녀)	전찬용
	의정부	꽃마리 청소년회 복지시설(소년소녀,여성)	조정란
	안산	명휘원(인지발달장애/성인)	김현정수녀

한국틴스타 워크숍(교사양성과정)

〈기본과정〉

234차 상현동 성당(7회)
2026.1.11.~2.22

235차 여주 소화유치원(8회)
2026.1.16.~2.13.

236차 수원가톨릭대학교(9회)
2026.1.2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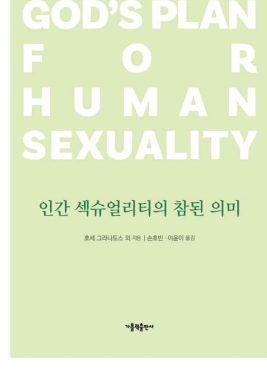
〈심화과정〉

2026.3.7. 명동 영성센터

2026.4.19. 명동 영성센터

발간

-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교회가 바라보는 인간 섹슈얼리티의 본질을 전하는 〈인간 섹슈얼리티의 참된 의미〉 발간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몸이
당신의 신비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어루만져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과 몸에 남겨진
상처들이 치유되고 정화되어,
당신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안에 당신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진리를 알아보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한국틴스타 소식지 몸사랑 64호 목차

들어가는 글
사람을 위한 교육 .....손호빈 신부

교육후기
성, 사랑으로 응답하는 책임 ..... 윤현준 요셉
나를 넘어 우리가 되기 위한 준비 ..... 김선영 글라라
진지하고 묵직했던 틴스타 수업 ..... 이기수 도미니코
내 안의 시간이 깊어지는 시간 ..... 오윤정 아녜스
자기 증여를 통한 행복의 완성 ..... 손창성 프란치스코
틴스타는 사랑을 표현하는 교육이다 ..... 김성이 안나
나를 만나는 교육, 틴스타 ..... 엄진수 엘리사벳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 이현수 세례자요한

한국틴스타 발전방향 안내
교육 과정 개요 및 용어 정의
교육의 방향과 목적

한국틴스타 지금
소개특강
프로그램 현장
틴스타 소식

Teen STAR

발 행 일 2026년 6월 (통권 64호)
창 간 호 2004년 10월
발 행 인 손호빈
발 행 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 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 화 02)727-2357~9
02)755-2629
팩 스 02)727-2243

[표지 이미지 제공] 출간 예정 도서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